



칼빈의 경제윤리

한상화

목차

- I. 서론
- II. 칼빈의 경제윤리의 신학적 배경
 - 1. 문화명령수행의 의무
 - 2. 구원론적 기초
 - 3. 기독교 공동체의 유기체적 연합
- III. 칼빈의 경제윤리
 - 1. 물질의 소유권과 소비에 대하여
 - 2. 노동과 직업에 대하여
 - 3. 상업과 이자에 대하여
- IV. 칼빈의 경제윤리와 자본주의
 - 1. 베버 논지
 - 2. 베버 논지에 대한 평가
 - 3. 칼빈의 경제윤리 관점에서의 베버 논지 비판
- V. 결론



I.
서론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중 가장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경제문제가 아닌가 싶다. 국가의 경제문제는 당장 나의 가정 경제와 직결될 뿐아니라, 세계를 향한 국가력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수년전부터 떠도는, “경제를 살립시다” 라는 정부의 캠페인은 상관없이, 더욱더 커지는 일반적인 과소비현상과 일부 부유층의 상상을 초월한 사치와 낭비실태에 대해, 실로 교회뿐아니라 의식을 가진 지성인들 사이에 어떤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요사이 일련의 부도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경유착에 따른 뇌물수수등의 부정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감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복음적 신앙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만유의 주되신 그리스도가 경제라는 현실적인 문제의 영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목회자들이 바른 성경적 시각을 제공하고 지침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바른 성경적 원리를 실제의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애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굳건히 설 수 있으며, 복음의 힘이 인간생활의 전영역에 미칠수 있다고 확신한다.

종교개혁의 완성자 존 칼빈, 그야말로 인간생활의 전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일관성있게 가르칠 뿐만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증거한 위대한 신학자이다. 그의 영향력은 교회사적으로 기독교 내에 만 지대했을 뿐아니라, 서구사회의 발전에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했기에, 인류문화사적인 큰 의미를 가진다.¹⁾ 그이유는 바로 그가 참된 복음신앙의 회복을 위해 싸웠을 뿐아니라, 이 복음적 신앙을 인간 생활 전영역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쳤고, 그의 역사적 삶을 통해 구체화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제네바의 교회개혁뿐아니라 사회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애썼던 그의 노력은 그의 신학의 구체적인 현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의 경제윤리를 살펴보는일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어려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모습으로 대처해야 할지 바른 시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예로, 돈을 물쓰듯이, 쓰고 보자는 세속적인 과소비물결에 거슬러, 칼빈의 성경적 가르침에 입각한 성숙한 교회와 교인들의 검소와 절제를 지향하는 하나님앞에서의 청지기적 삶은 잃어버린 경제적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사회와 경제는 그만큼 질서있게 바로 서 갈 것이다. 둘째로 칼빈의 경제관을 다름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괴리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보수주의 교회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내적으로 개혁주의의 본래 성격을 회복하는데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이와같은 개혁주의적 접근은 사회문제로 출발하여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자유주의적 접근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바른 신앙으로 출발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경제적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려는 노력으로 개혁신앙의 사회변혁적 측면을 되새겨볼수 있게 한다. 특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한다고 하는 통계를 대할 때,²⁾ 16세기 개혁당시와 사태가 뒤바뀌어버린 것을 느낀다. 복음을 통한 문화변혁이라는 개혁교회의 본래적 성격을 상실하고 사회의 현상유지 세력으로 화해버린 보수교회들은 다시한번 참된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의의를 가지고 본 논문은 칼빈의 신본주의적인 신학의 특성이 그의 경제사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견지에서 다음의 세가지 논지를 증명코자 한다.

1. 칼빈의 경제윤리는 그의 신본주의 신학의 배경속에서 이해될 때 바르게 다루어 질 수 있으며,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의 한 부분으로서 구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2. 그의 경제윤리는 인간공동체의 유기체적 결속에 대한 이념과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의 법이 그 근간을 이룬다.
3.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칼빈의 영향에 대한 막스 베버의 논지는 무리가 있으나, 그 관계성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칼빈의 이자에 대한 견해는 아마도 자본주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예정론과 소명론- 베버의 논지는 무리한 연결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이상의 논지들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먼저 칼빈의 경제윤리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가르침들을 살펴보고, 둘째로 경제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막스 베버의 논지와 관련된 자본주의에 대한 칼빈의 영향을 간략히 다룰 것이다.

II

칼빈의 경제윤리의 신학적 배경

칼빈 신학이 신본주의적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신본주의라 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각과 태도를 말한다. 그의 신학의 결정체인 「기독교 강요」만 해도 첫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접근으로 기독교의 중심진리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신본주의적 경향이 그의 경제윤리에도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칼빈의 경제관은 세속주의적 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후자가 단순히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a profit-oriented science) 과학이라면, 전자는 봉사를 목적으로하는 과학으로서(a service-oriented science)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숭고한 계명이 자리잡고 있다.³⁾ 또한 칼빈의 경제윤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커다란 신학적 틀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지닌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은 물질세계와 관계된 하나님의 창조명령수행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사명이 기초가 되나, 그 수행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을 자신의 탐욕으로 이용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부정의가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경제윤리는 구원론의 배경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제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야하는 성경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기체적 결속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물질에 있어서의 나눔과 직업에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측면을 더욱더 부각시킨다.

1. 문화명령 수행으로서의 경제행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의 섭리가운데 유지하며 다스리고 계신다.⁴⁾ 그리하여 그는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다. 인간은 이 만유의 주재앞에서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다(창 1:28). 우리는 이 명령을 피조계에 잠재해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발전시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화명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간사의 모든 활동의 의미를 이 명령의 수행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문화명령 수행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경제행위는 물질과 관계된 영역을 창조질서에 따라 다스리는 행위이다. 다시말하면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경제 행위는하나님앞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의미한다.

칼빈은 마태복음의 25장 20절의 주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장사를 한 사람임에 주목하며, 이와 같은 상거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달하기 위함이며 서로 교통하기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⁵⁾ 여기서 뜻깊은 것은 그가 그 시대를 앞서서 상업을 존중했다는 사실뿐만아니라 경제행위의 의미를 하나님의 풍요로운 선물들을 나눈다는 데에 두고 있는 것과 인간 상호간의 교통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본래적 의미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왜곡될 수밖에 없기에, 그의 경제사상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모든 좋은 것들을 독점하고, 축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이들을 착취하는 데로 기울어지기에 바른 경제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경제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바른 문화명령수행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경제의 영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인간속에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회복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2. 구원론적 기초

그리하여 칼빈의 경제윤리는 그것을 구원론과 관련시켜 다룬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경제관은 대체적으로 주석과 서신 그리고 설교등의 전 작품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 중에는 3권 10장에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그장은 우리가 물질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정황속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3권전체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지, 그 유익은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 강론하고 있다. 앞부분에는 신앙에 대해 그리고는 중생에 대해 취급하고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루는 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본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그 삶을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 10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가운데 이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내세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요」에서는 물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는 한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생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속에서 그의 의미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술하면, 3권 6장 1절의 첫머리에, “중생의 목적은 신자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들의 순종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양자된 그 양자권을 확실하게 위함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해놓은 것으로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있고 그럼으로써 그들



의 양자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중생의 삶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 내세를 위한 준비로서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성실히 성경적 원리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도들의 책임에 해당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이기에 목회자들은 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르쳐야하며 특히 칼빈의 구원론에 기초한 경제윤리아말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만 한다.

3.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기체적 연합

경제관은 언제나 사회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칼빈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 연합을 가르치고 믿었다. 그리고 그의 기독교적 사회관은 경제에 관하여러 가지 주제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과 평등관계에 입각한 인간사회를 의도하셨다. “이웃이라는 말은 분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인류전체가 하나의 교제의 거룩한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는 데는 그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보다 더 충분한 이유가 없다.”⁶⁾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 사회에서 이러한 사랑과 평등관계에 입각한 교제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평등과 악이 우리사회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질서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흐려놓고 변질시켜 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형태의 현재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본래의 우주와 자연의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교회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 “성도의 교제... 그 말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표현하는 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원리하에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회인 것이다.”⁷⁾ 다시 말해서 타락으로 깨졌던 인간사이의 본래적 결속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본래적인 그리스도의 사회에선 형제애에 입각하여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적어도 절대적으로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남녀간의 본래적 질서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한 점이다.⁸⁾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원리에 있어서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만이 다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두 가지 덧붙일 것은, 첫째, 칼빈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능력과 역할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분명히 어떤 이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이는 적게 받은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차이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즉 능력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을 섬기고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만큼 더 큰 의무를 감당하기 위함이며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칼빈의 평등사상은 또한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는 자유방임주의적 평등사상이 아니다. 그는 이 세상에선 이러한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오히려 현 사회 질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불평등과 부정의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대중들에 의한 혁명적 시위행위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주 심한 경우에 지위가 보다 낮은 집권자들에 의한 시위는 인정했지만 말이다.⁹⁾ 요컨대 그는 현 사회의 상하 권력구조를 인정하고,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호간의 자비와 존중을 촉구했을 뿐이다.¹⁰⁾ 즉 지위가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압제적으로 대하지 말고, 낮은 자는 자발적으로 순복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현 사회의 권력질서를 억누르거나 전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단지 교회는 이러한 상하 구조적 인간관계속에서 언제나 자비와 상호간의 사랑을 촉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자비를 얻으려면 그리고 그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으려면,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자에게 그렇게 대해주어야 한다.”¹¹⁾ 고 가르쳤다.



칼빈은 이 세상의 어떠한 합법적인 사회적 구조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모두가 일시적인 체제로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새로운 인간 공동체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 최악된 사회에 대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와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그리고 또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한 몸처럼 결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홀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간에 사랑하며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¹³⁾ 교회는 인류가 본래 형제애로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불완전하게나마 반영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사회의 공동체적 연합의 맥락에서 물질에 대한 나눔과 분배는 사랑과 정의라는 원리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사회경제 사상의 기본적인 핵심이다.

III.

칼빈의 경제윤리

1. 물질의 소유권과 소비에 대하여

칼빈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신분주의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분명 하늘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물질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계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우리가 물질의 번영을 추구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이는 그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잘 드러내준다.

(i) 부를 전심으로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이미 획득한 부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ii)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정직하게 노동하고 모든 악을 버려야 한다.

(iii) 적게 가진 자들은 그들의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양식을 만족함으로 먹어야 한다.¹⁴⁾

이 세 가지 조건은 바로 물질에 대해 얽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것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고, 많던지 적던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초연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빈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항상 있어온 오해 중에 하나는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과는 반대로 부와 빈 모두 우리의 신앙을 증거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¹⁵⁾ 물질적 번영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을 위해 나누기 위함이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다.¹⁶⁾ 그는 오히려 부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은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에 더욱더 집착하여 탐욕의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 당시



제네바의 세인트 삐에르(St. Pierre)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탐욕스런 부자들을 향하여 많은 공격을 했으며, 항상 회개를 촉구했다. 그에게 있어 물질적 번영의 참된 목적은 공동체를 위해 쓰기 위함이다. 가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기회이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이 있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자가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을 행 또는 불행으로 연결시키지 말아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의 덧없는 물질들을 불균등하게 분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선한 의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다. 그는 인간을 시험해보고(examining)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관대하다면, 수단들이 있을 때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가난한 다른 이가, 그가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기를 친다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하게 한 이 상황을 잘 참고 견딘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의 유용한 시험이다.¹⁷⁾

이와 같이 칼빈의 경제윤리의 중심적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들은 전 공동체를 위해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상이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경제생활의 규범이 되는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며,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기체적 연합이라는 사회관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자선을 강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대사들로 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려보기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들이다.(God's *procureurs* or *receveurs*)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그들 인간들에게 우리의 자선금을 주지만, 실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계산하고 계신다. 마치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준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손위에 놓인 것처럼.”¹⁸⁾ 그리고 이러한 자선행위는 단순히 율법적인 자세로 행해져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한 따뜻한 마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수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몸같이 하나로 결속 되어있으므로,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물질도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난한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한 배려를 몸소 가르치고 실천했을 뿐이다. 그 당시 제네바에 모자라는 식량으로 말미암아 일부 부유층의 독점과 투기를 신랄히 비판했으며 강단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부정의를 정죄했지만(가난한 노동자의 임금착취등의), 그는 결코 민중들에 의한 어떠한 혁명도 정당하게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것으로 가르치며 억눌린 자들의 인내를 촉구했다.¹⁹⁾

더 나아가 물질의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의한 물질의 공동소유에 대하여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 기독교 경제이론의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 공동체의 물질의 공유를 원리적으로 주장했던 재세례파의 극단성에 대해 반대했다.²⁰⁾ 그는 말하기를, “사유재산의 소유권이 분명하며 개인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²¹⁾라고 했다. 비엘러에 의하면, 칼빈은 공산주의와 개인주의의 중도를 지켰다고 본다. 그것은 칼빈이 개인재산은 분명히 개인재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²²⁾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가르침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인본주의적인 전제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모든 소유의 일시성과 상대성을 언제나 거듭



강조한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과 31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칼빈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들에 대해 내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²³⁾

이러한 그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준다.²⁴⁾ 소비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은 소비의 목적은 만물의 사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를 인정하기 위함이라는 신본주의적 태도이다. 소비의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목적도 하나님이다.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는 현세생활에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여 즐겨 사용하라고 나온다. 그는 금욕주의와 방종을 모두 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지 않는 소비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즐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다. 칼빈은 즐기 위한 소비를 금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맛을 주신 것은 맛을 즐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모두 우리의 오관으로 느끼고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다. 지나친 금욕주의는 이러한 창조원리를 거스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또한 이 세상 것들을 지나치게 탐하는 방종도 금하고 있다. 이 세상 것들은 본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우리의 욕욕에 따라 세상적인 것들에 폭빠져서 하나님 명상에 걸림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의복과 음식과 감각적인 것들에 예속되어 하나님을 잊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방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절제와 검소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그 한계를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과욕, 낭비, 허영, 사치 등은 우리의 양심을 거리끼게 한다. 소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지 않는 양심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이다. 그런 영역에 범조문을 세워 속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바른 성경적 원리 안에서의 자유임을 명심해야 한다. 칼빈은 지혜롭게 금욕주의와 방종주의 사이의 중용의 길을 걷도록 지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갈망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늘나라로 가고있는 성도의 순례의 길에 방해되지 않고 돕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칼빈은 이와 같은 바른 소비를 위한 세 가지 성경적 지침을 제시한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7장 29-31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는 바울의 교훈이다. 이것은 앞서 언술한대로 물질의 상대성과 일시성을 감안하여 소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늘 염두에 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는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부유함을 절제하라는 것이다. 이 지침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물욕을 절제하며 부한데나 빈한데나 어디에서든 만족을 배웠던 사도바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빌 4:12).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 너무 집착함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칼빈을 누가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네 보던 일을 셈하라” 는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소비해야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경영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때 그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주님은 극기와 단정한 정신과 검소와 절제를 좋아하시고, 무절제와 자만과 허식과 허영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소비하고 분배하고 생산해야 할 것이다.

3. 노동과 직업에 관하여

지금까지 물질에 대한 태도와 소유권과 소비에 대해 다루었다. 경제생활에는 소비하기 위해 생산



이 먼저 앞서야 한다. 칼빈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견해는 생산과 관련된 부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칼빈의 노동과 직업에 대한 견해는 그의 예정론과 관련되어 개신교 및 청교도들 사이에 이 세상내의 금욕주의(wordly asceticism)를 낳았고 이것은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핵심이라 했다.²⁵⁾ 이러한 견해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베버가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시키기 위해 세속적 직업에 유래 없이 최선을 다해 노동한다는 종교 심리적 해석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할 뿐아니라 무리한 연결로 보인다. 더욱이 하크니스의 견해에 의하면, 칼빈의 소명(divine calling)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대한 세속적인 의미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즉 소명이라는 용어가 세속적 직업으로의 부름의 뜻으로 쓰인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쓰인 경우에도 루터나 중세의 기능적 사회사상과(a functional view society) 그리 다를 바 없이 보인다고 했다.²⁶⁾ 사실 「강요」 3권 10장 6절에 나타난 다음의 인용은 루터나 다른 스콜라주의자도 할 수 있었던 말처럼 보인다.

끝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 .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트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주께서 지정하신 생활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초소(station)와 같아서,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정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기능과 위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사상을 우리는 기능적 사회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기능적 사회관은 중세 계층사회의 상하구조를 지키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되어왔는데, 칼빈이 여기서 초점을 두는 것은 사실 그와는 반대가 되는 직업의 평등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아무리 미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빛날 것이며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중세 로마교의 성숙 분리주의는 노동을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세속적 의무로 가르쳐왔는데, 그에 반대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과 직업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였다.

칼빈은 노동을 다른 모든 좋은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선물이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일할 때의 그 노동은 아마도 달콤한 즐거움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노동이란 마치 광산 속에서 징역을 하는 것처럼, 노예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별의 신랄함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완화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도록 노동하는 것에 약간의 즐거움을 남겼기 때문이다.”²⁷⁾ 그리하여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정한 신성한 것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칼빈은 거지들이나 무위도식자들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도원의 횡포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러나 그가 더욱더 크게 비판했던 자들은 남의 일을 빼앗는 자들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기술자들의 연장을 빼앗는 일이나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은 그들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일이며, 그들의 목을 자르는 행위다.”²⁸⁾ 칼빈의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존중이 아마도 그 당시 제네바를 피난민들의 왕국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피난민은 대부분 불란서나 이태리에서 핍박을 받고 피해온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칼빈은 이 피난민 문제를 소의회(Small Council)에 개입하여 방직산업을 발전시킴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확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결했다.²⁹⁾

칼빈은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사회의 공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귀하게 생각했다. 하나의 직업의 고귀성은 그것이 인간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느냐에 달려있



다고 보았다. “인간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삶의 방식보다 더 하나님에게 칭찬 받을 만한 일은 없다.”³⁰⁾고 그는 말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에 대한 봉사가 곧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로마교의 성속분리의 이분법적 윤리관에 반대하여 인간생활의 사회영역을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가르친 것이야말로 칼빈의 가장 혁신적인 공헌이 아닌가 생각된다. Venter는 칼빈의 직업에 대한 견해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³¹⁾

- (i) 기독교인의 삶은 외적인 의식에 의해 특정 지워지는 것이 아님. 이는 로마교의 성.속 이원론 적 분리에 반대하여 하는 말임.
- (ii) 이와 같은 성. 속의 분리는 말씀에 어긋남
- (iii)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여야 함
- (iv) 기독교인의 완전은 그의 직업 밖에서가 아니라 직업 속에서 이루어짐
- (v) 기독교인의 독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에게 제정된 소명(직업)에 관한 신적 기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임.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함.

더 나아가 직업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실력으로 수행해야한다. 직업이란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고귀성을 가지게 되고 더 큰 책임성을 느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게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흔히 자기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명예나 부를 추구하여 일하기 때문에 열심의 도가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제와 자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직업이 그것이 사회를 위한 것인 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것은 직업에 대한 신본주의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이 세속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 첫째는 일의 고귀성은 노동자의 더 깊은 헌신과 노동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리하여 생산 능력의 향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는 세속생활이 더 풍부하게 전개된다. 셋째는 직업이 단순히 급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기에, 직업에 대해 봉사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³²⁾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칼빈의 신본주의 노동윤리는 베버가 해석한 방식대로가 아니더라도, 서구 자본주의 발전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도, 칼빈의 신본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보상이라 함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복음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바랄 권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에게 그 존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순종만이 있을 뿐 아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일의 가치 때문이 아니다.”³³⁾ 임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그것을 없애면 안된다.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해 부여하신 것을 전달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가로채거나 줄이는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용자 입장에서든 임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칼빈은 노동자로부터 정당한 지불을 빼앗는 고용자들을 종종 “흡혈귀(bloodsucking)” 라고 불렀다. “인간의 노동력은 가지고 투기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고, 인간의 땀이요 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고 보복을 받게될 것이다”³⁴⁾라고 가르쳤다. 그



렇다고 그는 어떠한 정당한 임금의 수치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황금률과 사랑의 계명에 따라 후하게 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인 제정 액보다 더 많이 주어야 할뿐만이 아니라 피고용자에게 인격적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인간의 기본적인 연합이라는 사상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부정당하게 처우하는 경우가 많고, 인간의 악한 경향성은 언제나 약한 자들에게 불공평과 부정 의를 초래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칼빈은 임금책정에 있어서 미리 합의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하기 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부인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³⁵⁾ 실제로 칼빈은 그의 제네바의 동역 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급료를 올려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또한 노사분규에 중재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 당시(1559) 제네바는 리용과 파리를 휩쓸었던 파업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경제는 회복되었으며 생산은 증대되었다.³⁶⁾ 이와 같이 복음의 선포자들이 세상사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다. 비엘러는 칼빈의 임금에 대한 가르침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칼빈이 임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적정한 봉급의 문제를 논의할 때 가설적인 자연법에서 출발한 하나의 규범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상의 보수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를 성경 적인 관점에서부터 파악했다.³⁷⁾

이와 같이 칼빈은 임금이라는 영역에까지 신본주의적, 구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업과 이자에 관하여

칼빈의 또하나의 독창성은 그 당시의 일반적 경향성과는 달리 상업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이자놀이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점이 그의 경제윤리의 여러 측면 중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또한 소비와 생산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분배의 과정에서도 신본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경제활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조화 있고 발전적인 윤리관을 제시했다.

중세 신학자들은 상공업을 천시여기고 농업을 자연스러운 직업으로서 고귀하게 생각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상업은 이자놀이와 (이윤을 남기는 행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경이 정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호 12: 7; 창 7:19-23; 사 45:13; 겔 7:12; 스 1:11; 요 2:16; 시 15:5). 사고 파는 행위는 탐욕과 이자놀이의 악을 수반하는 천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할만한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³⁸⁾ 루터와 다른 주요 종교개혁가들도 상인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사치를 조장하고 생계비를 인상시키며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장본인들이라고 비난하였다.³⁹⁾ 그러나 칼빈의 생각은 달랐다. 상업도 본래 농업이나 똑같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기업이라고 여겼다. 더군다나 그는 상업은 본래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인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이윤을 그들의 노력의 보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⁴⁰⁾ 하지만 상업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에서 이탈되면 그 성격까지 급격히 변화된다는 것 또한 인정했다. 그 당시의 왜곡된 형태의 매점매석자들을 보며 칼빈은 살인자라고 외쳤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유통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업활동에 내포된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왜곡된 형태의 상업으로부터 정당한 상업을 구분



하여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에 의하면, 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성과 신용성이다. 오늘날 현대 경제학에도 강조되고 있는 덕목들로서 이들은 오로지 기독교적 구원론의 기초 위에서만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⁴¹⁾

칼빈은 교역과 상업이 인류의 보존을 위해 차지하는 섭리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해 낸 최초의 신학자였다. 그의 가르침은 중세적 억압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상업의 발전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 놓을 뿐 아니라, 분배의 기능을 생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가장 명료하며 혁명적인 칼빈의 경제적 가르침은 이자에 대한 그의 허용이다.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정죄했다.

(i) 성경에 의해 금지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출 22:25; 레 25:31; 신 23:18-20; 잠 28:8; 시15:5; 렘 10:10; 겔 18:8; 눅 6:35).

(ii) 아리스토텔레스의 돈에 대한 견해 때문에. 돈은 무실한 것으로 돈은 돈을 낳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그 반대를 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iii) 돈은 소비물에 해당하여 한번 쓰면 돌려 받을 수 없는 소비권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소비물질(*res consumptible*)과 비 소비물질(*res non-consumptible*)의 구분에 의거하여, 돈은 소비물에 해당하여 한번 소비하면 그만인 물질로 보고, 후자는 집과 같이 소유권과 그것의 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그것을 빌려주어 사용에 대한 세를 받고도 후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았다.⁴²⁾

이와 같이 교역과 산업이 활발하지 못하던 때의 구식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는 모든 이자놀이에 금령을 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전부터 경제생활의 필요에 따라 이자대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개혁당시에는 활발한 경제생활로 인해 이자율이 높아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실제 경제생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교회와 신학계는 전통의 답습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금지의 족쇄를 채워놓고 이론과 행위의 모순된 상황 속에 있었다. 칼빈은 이른바 믿음을 통해 전승에 대한 노예상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이자놀이에 대한 그의 견해는 자키누스(Sachinus)의 자문을 구하는 편지에 대한 그의 답장, "De usuris. Jehan Calvin a quelqu'un de ses amys" 에 나타나 있다.⁴³⁾

1)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31.), 34. 이 책에서 카이퍼는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가 어떻게 정치, 과학, 예술등의 서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2)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1995>, 306-307. 여기에 나타난 1994년 통계청조사의 종교인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는 0.4%로 감소한 반면, 천주교는 0.2% 증가하였다고 나와있다.

3) W. Venter, "Calvin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Institutes*"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roceedings of the Second South African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Potchefstroom, South Africa: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266.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 xvi, 1.

5)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Vol. I,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443.

6) Calvin's *Opera* 45, 615. Recited from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71), 55.

7) *Institutes*, IV, i, 3.

8) 칼빈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주석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신의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나 육체를 입으셨기에 차등을 두었다고 설명한 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근거하여 본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몸이나 외적인 관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세상의 일상적인 삶속에서는 구분이 있고 질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Vol I, trans. John Pringle, 353-4.

9) *Institutes*, IV, xx, 31. 이 부분이 낮은 직위의 집권자들에 의한 혁명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언제나 인용되지만, 실제로 그는 결코 어떠한 혁명도 허용한 적이 없다.

10) 그의 에베소서 6장 5-9절의 노예와 상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주석은 이러한 그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trans. William Pringle, 329-333.

11) *Opera*, 27, 350. Sermon XCVI on Deut. 15:16-23. Recited from Graham, 57.

12) *Ibid.*, 58-59.

13) 이와같은 사상은 그의 성례에 관한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Institutes*, IV, xvii, 38 에보면, 성례는 성도 상호간에 사랑을 의미하고 그들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것을 표시한다.

14) W. Venter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찾아 정리하여놓은 목록임, 289.

15) 그의 시편 41:1절의 주석을 보라.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I, trans. James Anderson, 113-114.

16) 그의 고후 8:13 에 대한 주석을 참조.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Vol II, 293-5.

17) *Opera*, 27, 337 f. Sermon XCV on Deut 15:11-15. Recited from Graham, 67.

18) *Ibid.*, 69.

19) 칼빈의 야고보 5:4절에 대한 주석. *Commentaries on the The Catholic Epistles*, ed. and trans. John Owen, 345.

20) 행 2:44 에 대한 그의 주석을 참조. *Commentary up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ed. Henry Beveridge, ESQ, 130-131.

21) *Institutes*, IV, i, 3.

22)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음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12.

23) *Institutes*, III, x, 4.

24) 여기에서 소비에 관한 논의는 그의 강요 3권 10장에 의거한 것임.

25)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26) Georgian Harkness,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Abingdon Press, 1958), 210-3.

27) 창 3:17에 대한 그의 주석을 참조.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 John King, 174.

28) *Opera*, 28, 161f. Sermon CXXXVII on Deut 24:1-6. Recited from Graham, 82.

29) 비엘러, op. cit., 83.

30) 마 25:24 에 대한 그의 주석.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Vol 1., 444.

31) Venter, 291.

32) *Ibid.*, 292.

33) Lk 17:7에 대한 그의 주석,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Vol I, 196.

34) *Opera*, 28, 11. Sermon CXXV on Deut 22:1-4. Recited from Graham, 86.

35) *Ibid.*

36) 비엘러, 90-1.

37) *Ibid.*, 91.

38) Venter, 293-4.

39) 비엘러, 96.



40)Graham, 77-78.

41)비엘러, 93-4.

42)Venter, 297-8.

43)이 서신이 14부분적으로 Georgia Harkness에 의해 번역되어 그의 책, 204-206에 실려있다.

* 출처 : <http://actscomi.net/in.html> 이 글은 『칼빈 신학 해설』이라는 책에 실린 글임.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